



# 대안가정

통권29호 (계간) <http://www.daeanhme.org>

2. 제안 / 두 번째 이동그룹휴
4. 스케치 / 후원행사 'Log-in 대안가정'
6. '해맑은아이들의집' 이야기
8. 스케치 / '해맑은아이들의집' 여름가족캠프
10. 집중 / 아홉 살 단비의 부채가 1천만원!
11. 학습상담 지원사업 '부모교육'
12. 상담현황 및 소식
14.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보고
16. 후원안내, 대안가정 알리미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10. 8. 10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 두 번째 아동 그룹홈

김명희 사무국장

2008년 4월,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첫 번째 아동그룹홈 '해맑은아이들의집'이 설립되었다. 대안가정에서 위탁보호되고 있는 아동 중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한 그룹홈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이는 이미 2002년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 시부터 계획에 있었던 일이었다.

'해맑은아이들의집'이 설립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금을 조성하는 일도 만만찮았지만, 법인의 정관을 바꾸는 행정절차가 순조롭지 못해 몇 년간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해맑은아이들의집'에서 맞이한 첫 번째 아동은 우리가정에서 위탁양육하던 혜윤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혜윤이는 우리가정에 오기 전에 이미 다른 대안가정에서 1년을 생활했고,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해맑은아이들의집'이 만들어지면서 그룹홈으로 옮겨왔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혜윤이는 여섯 명의 동생을 둔 맏이답게 의젓하게 자라 우리 모두를 흐뭇하게 한다.

지금 '해맑은아이들의집'에는 7명의 아동이 2명의 이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정원을 다 채운 상태라 더 이상 다른 아동을 맞이할 수가 없다.

처음 전세집을 마련할 때만 해도 널찍하니 환하게 느껴지던 100㎡가 넘는 실내공간이 지금은 터질듯이 꽉 차 답답하게 느껴지고, 일곱명의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감당하는 것도 한계점을 향해가고 있다.

대안가정운동본부의 두 번째 아동그룹홈 설립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아동이 5명이 되는 시점부터 두 번째 그룹홈 설립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아이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집이 포화상태에 왔고, 위탁의뢰되는 아동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홈이 빨리 만들어져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대가아동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7년간 대안가정에서 성장하던 다혜가 위탁이 종료되어 그룹홈에서 보살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다혜가 위탁된 이후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다혜의 어머니는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해야 하기에 다혜를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혜는 지난 8월 6일부터 우리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내에 두 번째 그룹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되지는 않기에 천천히 하나하나 준비해나가려고 한다.

먼저 아이들이 생활할 집과 아이들을 보살필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갖추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 최소한 1년 정도를 정부의 인건비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해야 하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도 확보해야 한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9천만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전세보증금 6천만원, 인건비 1천7백만원, 운영비 5백만원, 생활물품(살림살이) 구입비 8백만원 등) 그 외 아이들을 먹고 입고 교육시키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생계비와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두 번째 그룹홈이 만들어지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따로 분리하여 보살필 수 있다. 지금은 4살부터 초5년까지 남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녀를 분리하는 문제도 시급해졌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내가 더 마음이 쏠리는 부분이 있다. 바로 두 번째 그룹홈의 이름이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아하! 할 만큼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름을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상상력의 빈곤을 절감하면서 최근 우리말사전을 뒤적거리고 있다. '해맑은아이들의집'과 잘 어울리는 밝고 투명한 이름, 식상하지 않으면서 따스한 느낌이 전해지는 이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며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이름을 찾고 있다. 누군가 그런 이름을 알려주기를 기대해본다.

♣ 새로운 그룹홈에 필요한 물품들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압력밥솥, 전자렌지, LCD텔레비전, DVD, 진공청소기, 정수기, 컴퓨터(2대), 복합기, 전화기,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다리미, 선풍기(3대)
가구	옷장(2개이상), 서랍장(2개이상), 책장(2개), 수납장(3개), 책상 및 의자(2set),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2개), 다용도좌식탁자, TV수납장
생활용품	가스렌지, 식기 및 수저(8인set), 냄비 및 후라이팬, 조리기구, 침구(6set), 빨래건조대, 소화기

♣ 해맑은아이들의집 내부 전경





## 창립8주년 후원행사 'Log-in 대안가정'

2010년 5월 20일,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8주년 후원행사 'Log-in 대안가정' 잘 마쳤습니다. 행사 당일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음에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유지되어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일 참여는 아니었지만 후원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유롭게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하는 자리라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대안가정운동본부 후원행사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좀 낯설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날의 정경을 한 번 보러 갈까요



▲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



▲ 정영숙 이사님과 동료들 ~



▲ 함께한 기념으로 찰칵!



▲ 모두들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여러분들!



▲ 카이저호프 식구들! 고맙습니다



## ■ Log-in 대안가정 결산

세입내역	금액	세출내역	금액
후원 및 티켓 구매	13,205,740	음식비	2,539,700
※상품권 390,000원		장소대여비	750,000
		인건비	594,400
		초대장, 티켓 인쇄비	310,000
		사진촬영비	100,000
		교통비	81,500
		준비비	217,840
		현수막	110,000
		우편료	46,160
		기타	480,000
계	13,205,740	계	5,229,600
※순수익금 / 7,976,140원			

## ■ 후원 및 티켓구매 현황

금액	후원자 및 후원처
1,190,000	이수형
750,000	이병희
500,000	김규원, 전경수
450,740	송광익
400,000	이태원
320,000	이국진
300,000	TCN대구방송, 대경상(주), 제철일인식일예수재림교 영남합회 (주)월성, 태광공업사
250,000	우병걸
200,000	김신, 김봉섭, 김위홍, 김효정, 대구케이블TV, 박주희, 배성우, 북한이주민지원 센터, 손영수, 이용수, 이재수, 이재용, 이정화, 정성대, 정영숙, 진광식, 차학태, 청사영우회
150,000	배재성
120,000	서은주
100,000	김낙원, 김시열, 김영완, 김진의, 김진태, 김창규, 김명희, 박만원, 박성근, 박승무, 박한배, 배병주, 서유숙, 손병혁, 안용생, 윤문주, 이건호, 이동률, 이왕욱, 이진우, 이춘희,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장관석, 정한교
90,000	황윤석
60,000	전정호
50,000	권덕한, 김명세, 김양은, 김재경, 김희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기찬, 박상용, 박영훈, 박지영, 사회복지인의수다모임, 이한주, 임승백, 정소희
30,000	변정호, 615대경본부
25,000	허영철
20,000	이은지
120,000	익명
※390,000원	대구KBS기자일동(상품권 후원)

## 알콩달콩 「해맑은 아이들의 집」 이야기

### ▶ 봄운동회

초등학생만 다섯 명! 1학년들에게는 첫 운동회라 아이들은 한껏 들떴답니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운동장에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율동과 체조를 뽐내고, 운동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달리기에서 단비는 1등, 혜운, 영찬, 준희, 동협이는 2등을 했지요. 어디서든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제대로 실력발휘를 한 날이었습니다.



### ▶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을 맞아 카다리아저씨께서 맛있는 피자를 시주셨어요. 시시때때로 아이들을 기억해주시는 고마운 카다리아저씨! 배부르게 피자를 먹고 우방랜드로 갔습니다. 어린이날이라 가족 단위로 늘어난 인파에 밀려 놀이기구를 한 번 타려면 삼십분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 하며 내년에 또 오자고 계속 줄라대더군요. 결국 이모들이 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어주니 잠잠해졌습니다.

### ▶ 도윤이의 생일

"도윤아! 다섯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막둥이 도윤이가 1년 새 얼마나 부쩍 자랐는지 몰라요. 그동안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따로 공부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김, 도, 윤' 이란 이름은 혼자 쓸 수 있게 됐네요. 요즘 집 여기저기에 '김, 도, 윤' 이라고 뽀뽀뽀 적혀 있어요. 다섯 살이 되어서 더 개구쟁이가 된 도윤이. 조금만 덜 씩씩해도 좋을텐데요.



### ▶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오랜만에 온가족이 영화관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 나오는데 3D입체 영화라 전용 안경을 쓰고 봤답니다. 계속 흘러내리는 안경을 손으로 고정시켜가며 두 시간 남짓 영화에 빠져들었어요. 주인공 허킴과 드래곤 투스리스가 우정을 쌓아가며 나쁜 드래곤을 무찌르는 이야기에 흠뻑 빠져 한동안 헤어날 못했습니다.



### ▶ 서울직업문화체험

(사)한국이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주)하나투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관으로 대구경북지역협의회 소속 그룹홈들이 함께 서울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직업체험전문관 카자니아, 한강유람선, 광화문 해치마당, 드림캐트 공연 관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은 카자니아 체험이 제일 재밌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운전면허증을 따서 직접 운전도 해보고, 카메라맨, 차어리더, 세스코맨, 아마트쇼핑 등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 ▶ 실종유괴 예방교육

지난 3월 교육에 이어 6월에도 실종유괴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에서 특별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실종예방수첩'이라고 하여 아이들의 신체사이즈, 특징을 미리 기록하고 위급상황에서 바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열손가락 지문도 찍고, DNA추출을 위한 머리카락도 뽑아 수첩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 ▶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문화바우처 '신나는 예술여행'을 통해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을 보고 왔습니다. 공연 시작 전 불이 꺼지고 동물로 분장한 배우들이 객석 곳곳에서 춤을 추며 공연이 시작됐어요. 어두컴컴한 가운데 새로 분장한 배우가 도운이 앞에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거예요. 이모도 깜짝 놀랐지만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광경에 도운이는 그만 울어버렸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나쁜 마녀를 물리치고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보며 우리 아이들도 지혜롭고 용기 있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유육재, 한임숙, 김상진, 도철기, 곽은선, 장효일, 김나라, 구교청, 김근량 후원자님의 십시일반 후원금들이 모여 해맑은아이들의집에 디지털피아노와 삼총사 개인 좌식책상이 생겼습니다. 또 말씀이 잦던 화장실의 수전과 세면대 공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에서 여름이불 4세트를 후원해 주셨어요. 일명 '빵이모'라고 불리는 최민희님은 직접 만든 맛있는 빵을 선물해 주세요. 카타리아저씨가죽은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시구요. 냉장고에 반찬을 그득하게 채워주시는 왕복사님! 오실 때마다 재밌는 민화영화를 양손 가득 들고 오시는 이태원이시님! 아이들의 건강을 돌봐주시는 주치의선생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 해맑은아이들의집 여름 가족캠프

한창 피서철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방학을 하자마자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영덕 장사해수욕장에 위치한 펜션을 예약하고 경보화석박물관, 장사해수욕장, 포항에 있는 경상북도수목원까지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번 가족캠프에는 늘어난 남자아이들로 인해 이모들이 힘들어할까봐 큰아빠께서 동행해주셨어요. 아이들의 잠자리며 씻는 것까지 손수 해주신 큰아빠께 너무 감사드려요. 어스름이 깔릴 때 냇만을 찾아 바닷가를 거닐어 보고 펜션 수영장에서 수영복 자국이 남을 만큼 수영도 하고, 경상북도 수목원에 가서 가볍게 등반도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가족캠프였어요. '아~ 또 가고 싶다.'



▲ 오리엔테이션!



▲ 경보화석박물관에서



▲ 일일가이드 큰아빠와 모범학생 혜윤양



▲ 사진찍자, 김치~



▲ 수영이 너무 재밌어요





▲ 무서운 공룡과 다정한 남매



▲ 고기 굽는 큰아빠



▲ 초록나무 사이에서



▲ 경북 수목원전망대에서



▲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중일까요?



▲ 장사해수욕장의 밤



▲ 잠들기 전에



▲ 펜션을 나서며

# 아홉 살 단비의 부채가 1천만원!

김명희 사무국장

9살 단비가 '해맑은아이들의집' 가족이 된 것은 지난해 6월 말이다. 오랜 지병으로 투병 중이던 단비의 아버지는 이틀 후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등 친척들이 꽤 많았지만,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들 모두 고단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기에 단비의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하여 친척들의 협조를 받는 것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가 된 단비는 당시 8살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이 많다. 원칙대로 적용하면 행정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나 통장개설도 할 수 없다. 모두 법정대리인(부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설보호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기관이나 은행이 예외적인 배려를 해주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단비 명의의 휴대폰 미납요금을 독촉하는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했다. 도대체 누가 사용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휴대폰 요금을 단비가 배상해야 했다. 미납요금 감면과 휴대폰해지를 위해 2개월간 통신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 통신사마다 단비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우려하던 대로 7월에 다른 통신사에서 미납요금 독촉장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통신사들을 설득했고, 또 다시 두 대의 휴대폰을 해지시켰다.

지난 7월 19일, 단비는 '특별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서류를 가정법원에 접수했다. 올해 4월 20일,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부채를 변제하라는 통지문이 왔는데, 갚아야 할 금액이 1천만 원에 이르렀다.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친척들 중 누군가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진행해야 했고, 친척들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다. 이대로 두면 단비는 성인이 되자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봤지만 현행법으로는 법정대리인이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 없음을 확인하는 수준이었기에 7월 18일, 무작정 법원으로 향했다. 단비의 특수성을 증명할만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시도했으나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해주지 않았다. 하도 답답하여 친척들에게 잠깐 법원에 와주기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냉담하게 거절했다.

7월 19일, 단비가 '특별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이병희 변호사(대안가정은 동본부 이사)가 무료로 사건을 맡아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다.

지난 3개월간 맘속으로 온갖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며 원망과 분노가 일었다. 단비를 도와줄 위치에 있던 이들에게, 또 이런 무모한 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준 통신3사와 무료로 사건을 맡아주신 이병희 변호사님으로 인해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단비는 아마 부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수많은 단비는 어떻게, 누구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문제를 이대로 둘 것인가?



## 대안가정아동의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 학습상담 지원사업『부모교육』

대안가정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학습상담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참가자 모집을 하고, 초기면접과 개별적인 검사를 실시 한 후 6월 23일 1차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U&I학습검사에 대한 기본이해와 부모의 성격유형검사 결과에 대해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부모교육에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개별 검사를 하고 있어요



▲ U & I 학습검사에 대해 이해하기



▲ 학습상담전문가 김명희 국장님!!



▲ 개인별로 검사결과를 읽어보고 나누기



▲ 그룹홈 이모들이 열심히 듣고 있죠?



▲ 교육을 마치고 맛있는 점심식사^^

※ 대안가정아동의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학습상담 지원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 상담현황

###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아동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상담			기타	계	아동 친부모 만남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의뢰 아동
	아동위탁 의뢰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4월	2	16	1	13	-	-	-	6	38	4	1	-
5월	-	21	1	15	-	-	1	9	47	4	1	-
6월	-	14	-	5	-	-	-	3	22	6	-	-
계	2	51	2	33	-	-	1	18	107	14	2	-

### ♣ 상담내용별 현황

월	상담내용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웹상담	기타상담	계
4월		37	-	1	-	-	38
5월		40	2	4	-	1	47
6월		17	5	-	-	-	22
계		94	7	5	-	1	107

## ■ 본부소식

### · 후원일일호프 Log-in 대안가정 (2010. 5.20)

창립8주년 후원행사인 Log-in 대안가정 이 키이저 호프에서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자리가 없어 한참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대안가정아동의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학습상담

#### 지원사업 1차 부모교육 (2010. 6.22)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학습상담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안가정아동과 부모의 학습상담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을 했습니다. 학습상담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개별적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2차 부모교육에도 많이 참석해주세요~

## ■ 해맑은아이들의집 소식

### ·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시설장모임

(2010. 5. 14/6.9/7.2)

상주 움트리그룹홈, 현풍 이레그룹홈, 포항 솔빛 그룹홈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시설장모임에 김명희시설장이 참석했습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한 큰엄마. 힘내세요!

### ·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실무자모임 (2010. 5.27/6.15/7.8)

세차례의 실무자모임에 고빛나팀장과 설윤숙보육사가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그룹홈 평가에 관련하여 정보공유를 위해 평가위원인 김명희시설장이 동석하였습니다. 지역 내 다른 그룹홈과 머리를 맞대고 평가를 대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공동생활가정 시설 평가위원회 참석

(2010. 5.26/6.7/6.14/6.28/7.6/7.13/7.21)

2010년 10월에 실시 예정인 그룹홈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김명희시설장이 임명되어 서울에서 열리는 평가위원회를 참석했습니다. 평가지표의 개발과 그 적정성 등을 논하는 자리로 그룹홈운영 매뉴얼을 가늠해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룰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자립지원사업설명회참석 (2010. 6.8)

그룹홈협의회에서 지역별로 나누어 실시한 자립지원사업설명회에 고빛나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15세 이상 청소년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청소하기 까지 다 자립지원에 속한다고 하니 새삼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2011년 사회복지예산재정을 위한 대구시재정  
 토론회 참석 (2010. 6. 8)

대구시재정토론회에 설윤숙보육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섯 분의 각 분야의 전문 토론자가 2010년 현재 시행되는 사업과 2011년 구상중인 사업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 서울직업문화체험 (2010.6.11~12)

하나투어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소속 그룹홈들이 서울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다른 그룹홈 친구들과 함께한 첫 여행으로 친구도 사귀고 직업세계를 미리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1388 위기청소년지원 교육 참석 (2010. 6. 17)

그룹홈협의회에서 실시한 위기청소년지원 교육에 고빛나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각 지역 지역아동센

터, 센터, 그룹홈의 선생님들이 모여 정보교류를 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종사자 교육  
 (2010. 6. 24)

이야기치료연구소의 손철민강사님을 모시고 그룹홈 종사자 대상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육자의 긍정적인 지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실종유괴예방 교육 (2010. 6. 26)

2/4분기 아동실종유괴예방교육이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있었습니다. 만일 유괴를 당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동실종예방수첩을 직접 기록하고, 실종유괴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 ■ 아이들 소식

· 동협이와 이름이가아빠를 만났습니다

(2010. 5.7~9/6.19~20/7.9~11/7.30~8.7)

동협이와 이름이는 아빠를 만날 때마다 신이 납니다. 아빠와 우방랜드와 두류공원 나들이를 하거든요. 헤어질 때마다 이십지만 다음 만날 때까지 씩씩하게 지내기로 하고 아쉬움을 달랠니다.

· 준희가아빠를 만났습니다

(2010. 5.15~16/6.19~20/7.31~8.2)

쑥스러움이 많은 준희는 아빠를 만나도 쑥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중알중알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무뚝뚝한 아빠도 준희를 만나면 수다새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 영찬이가아빠를 만났습니다

(2010. 5.29~30/7.27~29)

아빠가 사준 페떼웃을 입고 돌아온 영찬이는 '근데 이거 여자바지래요'라고 합니다. 아빠랑 같이 고른 스키니진은 단추가 딱 하나 큐빅으로 된 바지였어요. 진희색에 영찬이에게 어울려 골라왔는데 고모가 보고 큐빅이 있어 여자바지라고 했답니다. 이모는 웃고 영찬이는 쿨하게 '그래도 괜찮

아요'라고 말하네요. 영찬아, 네가 너무 날씬해서 그래.

· 준희가엄마를 만났습니다 (6. 1/7. 2)

작년에 사시교정술을 받은 준희가 엄마를 만나 영대병원에 안과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평소 인상을 찡그리고 TV나 책을 보던 준희인데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맞추었어요. 엄마를 많이 닮은 준희는 엄마를 닮았다는 말에 배시시 웃기만 하네요.

· 혜원이가아빠를 만났습니다 (2010. 6. 26)

혜원이가 오랜만에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많이 보고싶었다던 혜원이! 아빠와 쇼핑도 하고 찜질방 나들이도 다녀왔어요. 여름방학에는 아빠와 휴가를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혜원이 방학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자!

· 도윤이가엄마를 만났습니다 (2010. 6. 26~27)

오랜만에 엄마를 만난 도윤이는 엄마와 같이 집에서 월드컵 응원도 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엄마는 도윤이가 그새 자라서 글씨도 쓸 줄 알게 된 것이 기특하고 고맙다고 하시네요.



### ■ 사무국 재정보고

(2010년 4월~6월)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회비			12,152,200	사무비			14,213,670
회비			12,152,200	인건비			11,389,870
이사회비			2,160,000	급여			8,450,000
정회원회비			690,000	상여금			720,000
후원회원회비			9,190,000	퇴직적립금			1,500,000
특별회비			112,200	사회보험부담금			719,870
후원금			15,282,033	업무추진비			302,000
후원금			15,282,033	기관운영비			200,000
일반후원금			281,153	회의비			102,000
그룹출후원금			1,795,140	운영비			2,521,800
일일호프			13,205,740	여비			496,000
잡수입			1,228	수용비			738,100
잡수입			1,228	공공요금			274,300
예금이자수입			1,228	제세공과금			802,600
				차량비			107,770
				집비			103,030
				재산조성비			143,840
				시설비			143,840
				자산취득비			143,840
				사업비			6,356,080
				일반사업비			6,356,080
				상담사업			61,760
				대안가정지원			614,470
				출판홍보사업			450,260
				후원사업			5,229,600
				전출금			2,820,140
				전출금			2,820,140
				그룹출출금			2,820,140
				상환금			1,800,000
				부채상환금			1,800,000
				원금상환금			1,800,000
				잡지출			700,000
				잡지출			700,000
				잡지출			700,000
총계			27,435,461	총계			26,033,730
1/4분기 이월금			3,377,953	잔액			4,779,684
합계			30,813,414	합계			30,813,414

### ■ 해맑은아이들의집 재정보고

(2010년 4월~6월)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전입금			2,820,140	사무비			10,951,755
전입금			2,820,140	인건비			9,334,255
법인전입금			2,820,140	급여			7,930,000
후원금			156,100	상여금			600,000
후원금			156,100	사회보험부담금			804,255
일반후원금			156,100	운영비			1,617,500
보조금			6,750,610	여비			165,600
보조금			6,750,610	수용비			644,730
생계비			6,750,610	공공요금			355,470
잡수입			474,805	제세공과금			361,700
잡수입			474,805	차량비			90,000
예금이자			4,117	재산조성비			1,902,370
기타잡수입			470,688	시설비			1,902,370
				자산취득비			1,902,370
				사업비			6,696,330
				운영비			4,855,130
				생계비			2,531,960
				수용기관경비			769,690
				피복비			831,550
				특별급식비			212,570
				의료비			49,360
				연료비			460,000
				교육비			892,050
				도서구입비			66,500
				학습지원비			367,300
				수학여행비			122,800
				학용품비			83,940
				교복비			43,000
				이미용비			20,000
				기타교육비			188,510
				사업비			949,150
				경제교육			330,000
				위생및안전지도			78,800
				가족행운놀이			225,200
				가족친화			201,750
				문화체험			113,400
				보조금반환			374,128
				보조금반환			374,128
				보조금반환			374,128
총계			10,201,655	총계			19,924,583
1/4분기 이월금			19,868,328	잔액			10,145,400
합계			30,069,983	합계			30,069,983

#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신한은행 : 100-018-271549

아동그룹홈 '해맑은아이들의집'은 5명 내  
외의 아동과 2명의 선생님이 가족공동체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또 하나의 대안가정입  
니다.

## 예금주 「해맑은아이들의집」

대구은행 : 140-12-001469

### 지로로 납부하시려면

1.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발송하는 지로용지로 은행에서 납부
2. 인터넷 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지로번호 : 6307008)

대안가정이 궁금하세요? 불러만 주세요!

## 찾아가는 『대안가정 알리미』

대안가정?? 좋은일 같긴 한데, 막상 내가 도움 건 없는 것 같으시다구요?

대안가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

대안가정운동에 참여하는 첫걸음입니다.

단 한명도 좋고, 수백명도 좋습니다.

계모임, 동창회, 동아리 등 각종 소모임 설명회에서

학교, 교회, 기업 등 대규모 강연까지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동료, 가족들과 함께

세상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 알리미를 부르시면 대안가정 부모를 위한 지침서 「대안가정 길잡이」를 드립니다.



\* 문의 : ☎ 053-628-2592